

이 대통령·김혜경 여사 소록도 방문... 주민과 약속 지켰다

현직 대통령 첫 방문...김 여사 "대통령과 함께 오겠다" 다짐 실천

김 여사 오월어머니집 방문 약속도 지켜...“청와대 이전하면 초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고흥군 국립 소록도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소록도병원을 방문한 건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회원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국립 소록도병원 방문 소식을 하루 전인 지난 24일 알렸다. 이 대통령 소록도병원을 방문한 이유는 대선 기간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혜경 여사가 선거가 끝난 후 대통령과 함께 오겠다는 약속 때문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 자서전인 '이재명의 굽은 팔'을 내보이며 서명을 받고 사진 촬영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며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냐"고 물었다.

오동찬 국립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면 지붕이 걱정되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 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하다"며 "(대선 기간) 김혜경 여사가 먼 길을 직접 찾아와 낮고 어두운 곳을 살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민들로부터 소록도의 아픈 역사를 전해들은 이 대통령 내외는 환우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들은 얘기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며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의 첫 국립 소록도병원 방문은 대선 기간 김혜경 여사의 약속 때문에 가능했다. 지난달 김혜경 여사의 소록도 방문은 선거 유세 차원보다 사회적 약자를 만나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물론 소록도가 포함된 선거구가 전남에서 유일하게 보수 후보가 진보 후보를 앞서는 곳으로 총 투표수가 많지 않음에도 주목을 받는 곳이다. 과거 소록도강생원이었던 국립소록도병원은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절인 지난 1960년 국립병원이 됐고, 박 대통령의 부인인 육영수 여사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인 곳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보수 정당 후보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대선에서도 보수 후보(윤석열)가 전체 355표 가운데 207표를 획득, 58.3%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김혜경 여사의 방문 효과를 본 것인지 보수 후보(김문수) 득표율이 13.1%포인트 줄었다.

한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후 광주시남구 양림동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유족인 '오월 어머니들'과 비공회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는 안성례 오월어머니집 초대관장, 김형미 현 오월어머니집 관장 등 회원 11명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대선 이후 다시 밟고 했던 약속을 지키러 오월어머니집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로 이전하면 오월 어머니들 초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 환자를 위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광주, AI 중심도시 조성 새 정부 설득 과제 안았다

광주·전남 지역 현안은?

광주시가 미래 먹거리 사업인 광주AI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서 새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또다른 과제를 안게됐다.

반면,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지역현안을 듣는 자리에서 광주의 AI인프라인 데이터센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다.

광주 인공지능 사업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진짜 되겠냐"고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정부가 GPU를 대량으로 구매해도 쫓을 곳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강 시장은 "후보시절 국회 여의도에서 2시간 가까이 걸으며 이야기 했지만, 1차 집적단지로 구성된 AI데이터센터 900여개의 기업이 사용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 활용도가 상당

이 대통령, AI 인프라 데이터센터에 회의적 반응 전남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긍정 반응에 탄력 받을 듯

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추가로 설치해도 쓸데가 없다고 하던데..."라고 말했다.

이에 강 시장은 "GPU800장 용량이 적지만, 100% 활용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강 시장 지원에 나선 오상진 인공지능 산업융합단장은 "최근 경쟁률이 7대1이나 된다"고 강조했지만, 이 대통령은 "무료만 쓰는 거 아니냐"면서 "운영비가 부족한 거 아니냐"고 다시 물었다. 결국 이 대통령은 실제적으로 광주 데이터 센터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강 시장은 "광주 AI데이터센터는 삼성과 퓨리오사 등 900여개 기업들이 쓰고 있다"면서 "299개 기업이 MOU 맺었고

사업소를 열고 고용을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7월에 AI 2단계 실증사업을 위한 예타면제안을 해주면 광주AI산업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정책실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따로 해봐야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계통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도 에너지대전환을 이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에너지 고속도로 조성을 위한 전력계통 확보와 전력이 필요한 기업이 직접 서남권에 와서 전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도 호응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서남 해안지역은 에너지 보고이며 이를 활용하면 지역 발전을 이끌수 있을 것"이라면 "특히 남부벨트 진흥 이뤄내면 수도권 일극체제 해결 가능해 보인다"고 이야기 하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주항공 진상규명해달라·사법시행 부활시켜주세요"

광주·전남 주민들 다양한 건의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25일 열린 '호남의 마음을 듣다' 행사에서 직접 마이크를 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양한 건의사항을 내놨다.

자신을 '송정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사업 승인 된 지 10년이 됐지만 자금이 모자란 상황으로 시공에 참여하는 회사에 선지급을 요청했으나 지급이 안됐다"며 "광주시정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해서 왔다. 아울러 전국에 산재한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논의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주택 문제는 광주뿐만 아니라 온동네에 있더라"라며 "대통령실에서 조사중이다. 이미 조사를 했고 실태조사 및 대책이 있는지 조사 중이니 조금 기다려 달라"라고 답했다.

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인 김유신 씨는 "오늘로 참사가 발생한지 179일째다. 국민이 안전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달라"며 "이와함께 제주항공 특별법 시행령에 치유휴직은 근로자만 가능하다. 이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에 얘기해서 유가족과 충분히 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광주시민 김혜선씨 "대선 공약으로 4.5일제를 한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여가시간이 늘어나 여행, 관광 많아질 텐데 그렇기 위한 기반시설이 필요해 보인다"며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는 예타가 면제돼 바로 추진된다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이고, 서울갈 때 기차 표가 없다. 증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용량 부족으로 추가 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사법시행을 부활시켜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광주시 북구 주민 신동엽씨는 "사법고시가 폐지돼 로스쿨로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로스쿨은 '금수저'만 다닐 수 있는 곳인 것 같다.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진짜 어려운 주제가긴 하다"면서도 "검토나 한번 해보시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법조인이 되는) 모든 길은 로스쿨밖에 없어야 하나.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자격은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밖에 호남 청년들이 지역 식재료와 음식문화를 기반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 및 기반 마련을 해달라는 요청과 부족한 경전선 전철화, 하의도 연륙교 설치 등 광주·전남 SOC 확충해달라는 건의사항도 나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40

1985-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